

엄마가 된 후, 나는 어린 것이라면 무조건 사무친다. 그런 내 마음이 요즘은 팔레스타인 아이들 때문에 매일 아프다. 텐트 자락이 휘날리는 TV 속의 황량한 난민촌에는 불안에 찬 눈빛의 아이들이 그득하다. 희망이란 없다는 얼굴로 “우리도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중얼거리던 예닐곱 살의 아이를 본 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알 카에다가 사실상 궤멸됐다는 외신이 전해지기 전날 한 일간지 1면에는 진격하는 이스라엘의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도망치는 남자 아이들의 사진이 실렸다. 한 아이는 맨발이었고, 한겨울인데도 반소매 차림이었다. 콜리앗과 싸우는 이슬람의 어린 다윗들.

무엇이 아이들에게 크레용 대신 돌멩이를 들게 했나, 장래희망이 수시로 바뀌어야 할 아이들이 왜 전쟁터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나. 이 물음은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 성일권, 김영사)과 《냉전과 대학》(노암 촘스키 외, 정연복, 당대)을 읽는 내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냉전과 대학》을 읽는 동안 추상적이었던 생각은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을 덮을 때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두 책과 아프간의 아이들이 무슨 관계냐? 거칠게 말하면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식인의 역할을 통해 아프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국가는 정의롭지 못하다

《냉전과 대학》은 노암 촘스키, 하워드 진, 이매뉴얼 월러스틴처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석학들이 매카시즘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미국의 대학과 학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것이다. 나로서는 알 길 없는 수많은 학자와 저서, 미국의 정치적 사건들과 그에 따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니 모두 이해했노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 한 것은, 국가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이들은 한편으로는 위협을, 다른 한편으로는 비열한 꼬드김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가치관에 따라 가르치고 행동한” 이들이 모두 소수나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치하의 약소민족들, 거대 자본가 밑의 노동자들,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 이 대목에서 슬그머니 아프간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에서도 말했듯 지금 이 지구상의 최약자는 그들이겠기에, 9·11 사건의 배후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슬람은 과연 미국이 말하듯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가.

사이드는 그 오해의 근원을 다각도로 파헤치면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내면적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슬람을 서구의 적으로 규정하는 헛탕터류의 지식인이나 이

이 책들은 서구사회가 빠진 오만의 함정을 지적하고 지식인의 역할을 묻고 있다. 《대학과 냉전》이 냉전시대의 소수 정치가들이 대학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보여줌으로써 지적 오만, 지식인들의 역할을 고찰했다면,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은 비판적 자기성찰력을 상실한 미국과 서구, 지식인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통해 세계의 진정한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책갈피 산책

《냉전과 대학》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서구사회의 허구, 지식인의 이중성 비판한 두 권의 책

노암 촘스키 외 지음 | 정연복 옮김
당대/A5신/380면/12,000원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 성일권 옮김
김영사/A5/246면/9900원

이현주 | 출판칼럼니스트



슬람의 역사가 처음부터 결함 투성이었다고 단정한 네이폴 등은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기한 셈이다. 서구인들뿐 아니라 이슬람의 지식인들, 좁게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식인들 역시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PLO는 민족의 안녕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지식인들은 집단적인 분노를 확산시키고만 있다.

문명의 내면적 역동성과 다양성 외면한 지식인들 비판해

사이드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다. 서로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누구의 고통도 없이 공존하자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목숨이라는 게 있을까. 9·11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게 될 수많은 팔레스타인 어머니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동’해야만” 한다는 아렌트의 말은 정말 옳다.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도 담겨 있다. 1948년 아프가니스탄을 불법적으로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슴없이 정의를 유린하는 강대국들의 오만한 행동 등. 전쟁은 끝났다. 이제 TV도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